

광주시, 근대산업 유산 전방·일신방직 개발 협상

도시계획 변경 협상 대상 선정...개발계획안 제출 후 본 협상 착수 이용섭 시장 "2025년까지 특급 호텔 희망...대형마트 여등산 고려"

광주시가 근대산업 유산인 전방(옛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을 위한 정식 협상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북구 임동 전방, 일신방직 공장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공장 건축물 보존,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상업·업무·문화 시설 융복합 개발, 아파트·주거 위주 개발 지양,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설계 공모와 특별건축 구역제 도입 등 도시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자 측은 지난 10일 이런 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랜드마크로서 디자인 특화 명품단지를 조성해 선진적 도시개발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사업자 측에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제출하면 협상 조정회의를 구성해 본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광주시와 민간 관계

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천터미널, 상무지구를 잇는 부지가 개발된다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여는 것은 물론 불거리와 시민 생활편의시설 제공으로 펀 시티(Fun City)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장 부지에 최근 유치 확정된 2025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에 맞춰 국제적 수준의 특급 호텔을 건립하고 싶다는 의견도 밝혔다. 다만 지역민의 요구가 커진 참고형 할인 매장 등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는 데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이 시장은 "대형 마트 입지는 도심권인 이곳(방직공장 터)보다는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여등산이 적합하다고 본다"며 "마음먹고 소망하는 시민은 외곽(여등산)으로 가도록 하고 일상적 소비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전방·일신방직 공장은 지난해 7월 전방(16만 1983㎡)은 3660억 1400만원에, 일신방직(14만 2148㎡)은 3189억 8600여 만원에 부동산 개발 회사(MBN프라퍼티+휴먼스 홀딩스)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개발 대상지는 총 29만3290㎡(8만8720평)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첨단지구에 5번째 수소충전소 개소 시간당 10대 충전 가능

광주시는 13일 광주 북구 이노비즈센터 부지에서 월출 수소충전소 개소식을 열었다.

14일부터 운영되는 이곳은 진곡, 동곡, 임암, 벽진에 이은 광주 다섯 번째이자 북구 첫 수소충전소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불가능해 2018년부터 정부에 법령 개정 등 건의, 첨단국가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에 충전소를 열게 됐다.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을 투입한 충전소는 1시간에 수소차 10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용량을 키웠다. 기존 충전소는 5~6대를 충전할 수 있다.

광주시는 내년에 장동, 매월 등 4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2월 장동 시내버스 전용 충전소가 완공되면 시내버스 전용으로 운영 중인 벽진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승용차(넥소)도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가운데)이 13일 오후 북구 월출동에서 열린 월출 수소충전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사업 본격화

애플플라자 설계비 10억 확보 숙식공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광주시가 국비 확보 등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정부에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끝에 내년도 예산으로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

다.

광주시는 지난달 3일 대시민 현장보고회를 통해 무등산 난개발을 막아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양파크 공유화 3대원칙으로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 조성 ▲무등산권 생태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중심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을 발표했다.

시는 민관정위원회 운영,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양파크호텔 부지 및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등산 생태시민정원으로 조성하고, 신양파크호텔 기존 건축물은 보존하

되 누구나 머무를 수 있도록 생태·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무등산 생태시민호텔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1·2층은 문화·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시민이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설계공모 등을 통해 폭 넓은 세부 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공유화 사업 추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22 연차별 실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 건의서를 만들어 수차례 국회를 방문했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확보의 필요성 등

을 적극 피력한 결과 설계용역비 등으로 2022년 연차별 사업비 10억원을 우선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신양파크 호텔 관련 '아시아 아트 플라자' 조성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국비 150억원 등을 투입해 부지 및 기존 객실을 활용한 숙식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문화·교육을 위한 복합예술공간 등을 조성하게 된다.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관정의 협치 행위로 무등산권의 난개발을 막아내고 신양파크호텔을 누구나 찾아와 머무를 수 있도록 시민에게 들려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국비확보로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매출 1억↑2곳...소득 창출 한몫

전남도가 전국 첫 시행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건강꾸러미 판매만으로 역대 고소득을 올린 농업경영체가 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도내 건강꾸러미 전체 판매액은 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원)보다 4배나 늘었다.

올 한 해 매출액 1억원 이상을 달성한 곳은 2개 농업경영체로 장성과 순천에서 나왔다. 이밖에 3000만원 이상을 판매한 농업경영체는 12곳, 2000만원은 7곳, 1000만원대는 13곳에 달한다.

최다 매출액을 기록한 장성 '백련동 편백농원(대표 정순원)'은 편백나무 캐릭터 도마만들기와 편백나무 키우기 등 제품을 판매해 지난해 5500만원보다 2배 많은 1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어 순천 농업회사법인(주)에스펠리아가 반려식물 심기 등 건강꾸러미로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여수 주식회사 소셜바이오는 돌산 갯김치 만들기 8200만원, 여수 '농업회사법인 향유미가'가 7800만원을, 화순 '약선향기'가 69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jnmall.kr)에 제품을 입점시키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펼치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주요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과학기술 발전위 회의 전남 정책 차기정부 반영 논의

전남도가 13일 진도에서 '2021년 전라남도 과학기술 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관련 정책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는 명장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최용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 박기영 순천대 교수, 범희승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 위원을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1부는 전남 과학기술발전위원회 총회, 제2부는 위원회와 목표대,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탄소중립을 대비한 전남 미래산업 기술 발전 포럼'으로 진행했다.

과학기술발전위 총회에서는 위원회 분과위원을 주축으로 기획회의를 통해 발굴한 4개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대훈 동신대 교수가 '전라남도 천연물 기반 산업 활성화 방안', 남택근 목포해양대 교수가 '신박용 탄소중립연료 eFuel연료 생산 및 실증기술개발', 홍창국 전남대 교수가 '고성능 에너지 생산 저장기술 개발', 김중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센터장이 'UAN(도심형항공모빌리티) 현황 및 대응과제' 등을 각각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지방우정청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망글 섬마을에서도

함께 웃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우체국 예금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